

2-1. 문항카드 ① <인문계열 1회차 1번 문항>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1회차) / 문항 (1-1, 1-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경제,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계층간 차이, 소득 5분위 배율, 소비불평등, 착시 현상, 취업자수, 고용률
예상 소요 시간	5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계 열 문 항 1

<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계층 간 자산과 소득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상위 20% 가구가 보유한 자산 가치는 2년 전보다 평균 1억 원 이상 증가해 12억 원을 초과하였다. 이 수치는 나머지 80% 가구가 보유한 자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 2억 원 이상 큰 규모다. 또한, 모든 계층에서 월평균소득이 감소하였는데, 그 비율은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소득 5분위 중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소득 감소율이 0.78%인데 비해, 나머지 80% 가구의 월평균소득 감소율은 1.59%에서 3.17%로 상위 20% 가구보다 더 높았다. 결과적으로 2019년 4.77이었던 소득 5분위 배율\*은 1년 만에 4.89로 0.12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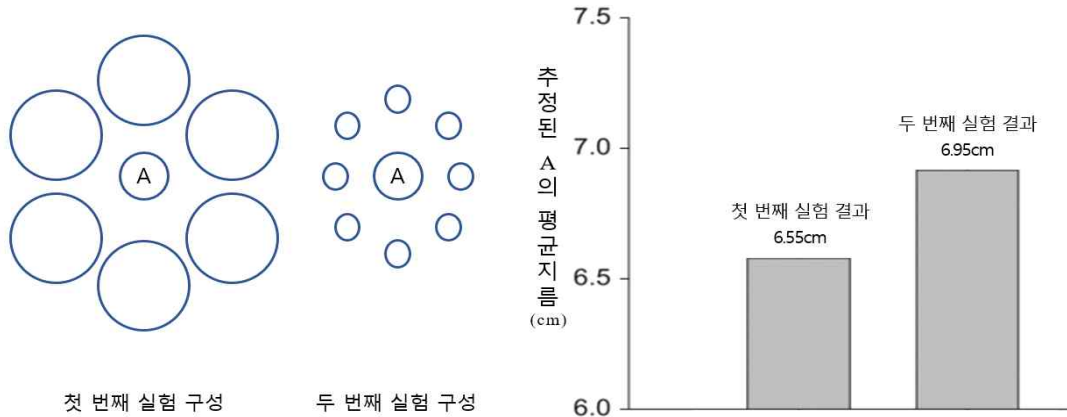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컸던 2020년에는 소비 부문에서도 계층 간 격차가 발생하였다. 소득 계층 간 소비 수준 차이를 나타내는 소비불평등지수는 2019년 3.67에서 2020년 3.74로 0.07포인트 상승하였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오락·문화와 관련된 선택재를 중심으로 소비 수준 격차가 확대된 것에 반해, 2020년에는 식료품이나 보건 혹은 주거·수도와 같은 필수재와 관련된 항목에서 소비 수준 차이가 더 벌어진 것 역시 주목할 만한 변화다.

\* 소득 5분위 배율 = 상위 20% 평균소득 ÷ 하위 20% 평균소득

<나>

제시카 위트를 포함한 연구자들은 36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에빙하우스 착시(Ebbinghaus illusion) 현상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들은 지름이 5cm인 원(circle) A를 준비하였다. 첫 번째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지름이 15cm인 여섯 개 원으로 둘러싸인 A를 보여준 후, 여섯 개 원들과 비교하여 A의 지름을 추정해 보라고 요청했다. 이때 추정된 지름의 평균은 6.55cm였다. 두 번째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지름이 3cm인 원 여덟 개로 둘러싸인 A의 지름을 추정했고, 이번에는 추정 지름의 평균이 6.95cm로 늘어났다. 두 차례 실험에서 추정된 평균 지름의 차이는 0.4cm인데, 이는 A의 지름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식이 비교 대상 원의 크기에 영향을 받아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그림> 제시카 위트의 실험 구성 및 결과



<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4분기(7~9월) 15세 이상 취업자수가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7월과 8월에 취업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54만 명과 51만 명 증가했고, 9월에는 67만 명이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취업자수 증가폭은 예년 수준인 30만 명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15세 이상 취업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2021년 3/4분기 고용률 역시 61.2% 혹은 61.3%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 1% 포인트 정도 상승하였다. 한 **전문가**는 “2020년 3/4분기와 비교하여 2021년 3/4분기에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 상황이 전반적으로 대폭 개선되었다.”고 말했다.

<표 1> 2019~2021년 3/4분기 15세 이상 취업자수와 고용률

기간		취업자수 합계(십만 명)	고용률**(%)
2019년	7월	273.8	61.5
	8월	273.6	61.4
	9월	274.0	61.5
2020년	7월	271.1	60.5
	8월	270.9	60.4
	9월	270.1	60.3
2021년	7월	276.5	61.3
	8월	276.0	61.2
	9월	276.8	61.3

\*\* 고용률 = (15세 이상 취업자수 ÷ 15세 이상 인구) × 100

1-1. <가>의 관점에서 아래 <표 2>를 참고하여 <다>의 전문가 발언의 한계를 설명하시오. (300±30자)

<표 2> 2020 ~ 2021년 3/4분기 15세 이상 취업자수(연령대별)와 고용률

기간		취업자수 합계 (십만 명)	15~29세 (십만 명)	30~40대 (십만 명)	50대 (십만 명)	60세 이상 (십만 명)	고용률(%)
2020년	7월	271.1	38.0	117.0	63.6	52.5	60.5
	8월	270.9	38.1	116.1	63.8	52.9	60.4
	9월	270.1	37.3	115.7	63.6	53.5	60.3
2021년	7월	276.5	39.9	115.9	64.6	56.1	61.3
	8월	276.0	39.5	115.3	64.6	56.6	61.2
	9월	276.8	39.5	115.7	64.9	56.7	61.3

1-2. <나>의 논지를 활용하여 <다>의 <표 1>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다>의 견해를 평가하시오. (600±60자)

3. 출제 의도

이 문항은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계층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격차와 착시 현상을 파악한 후, 이를 활용하여 <표 1>과 <표 2>에 있는 고용 관련 데이터를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제시문 <다>에 소개된 주장의 한계점 기술 혹은 문제점 비판을 목적으로 한다.

어떤 현상에 대해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과 전체를 세분화하여 바라보는 관점은 단순히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낳을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어떤 현상을 비교 분석함에 있어서 비교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역시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비교 혹은 분석하는 것이 데이터가 제시하는 본질적 실체에 접근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과거의 문해력이 글을 읽고 쓰는 것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표>나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를 통해 제공된 정보와 데이터가 늘어나므로,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문해력’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러한 데이터 문해력은 비판적 사고나 협력적 의사소통과 같은 기본 소양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주어진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치명적인 오류를 줄여 줄 수 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1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중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관련 성취기준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6) 사회 정의와 불평등 [10통사06-03]에서는 사회 계층의 양극화, 공간 불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등의 사례를 조사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복지 제도, 지역 격차 완화 정책, 적극적인 우대 조치 등을 다루도록 한다. (131쪽)	제시문 <가>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1)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12사문01-02]를 통해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과 장점 및 한계 점을 학습한다. 두 연구 방법의 전통이나 특징을 대조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필요한 경우 이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회·문화 현상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247쪽)	제시문 <나>
성취 기준 2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12사문04-03]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 성 불평등, 빈곤의 양상과 그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는 인종, 민족, 국적, 신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251쪽)	제시문 <가>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 기준 1	(3) 국가와 경제 활동 [12경제03-03]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과 경제적 영향을 알아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223쪽)	제시문 <다> <표 1> <표 2>
성취 기준 2	(5) 경제생활과 금융 [12경제05-01]에서는 수입(소득과 부채의 합), 지출(소비 지출과 비 소비 지출의 합), 신용(채무 부담 능력), 저축(수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 투자(금융 자산 또는 실물 자산으로 저축을 전환하는 활동, 자본재를 증가시키는 기업의 투자 활동과 구분)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한다. (226쪽)	제시문 <가>

나) 자료 출처

-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1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신한은행	신한은행	2021		제시문 <가>	○
	『우리나라의 소비불평등 추정 및 주요 특징 분석』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75권 10호	2021		제시문 <가>	○
	Get Me Out of This Slump! Visual Illusions Improve Sports Performance	Witt JK, Linkenauer SA, Proffitt DR	Psychological Science: 23(4)	2012	3	제시문 <나>	○
	국가통계포털 ( <a href="https://kosis.kr/">https://kosis.kr/</a> )	통계청	통계청	2021	-	<표 1> <표 2>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통합 사회	육근록 외	동아출판	2018	172-174	제시문 <가>	○
사회·문화	손영찬 외	미래엔	2018	27-28	제시문 <나>	○
사회·문화	손영찬 외	미래엔	2018	154	제시문 <가>	○
경제	박형준 외	천재교육	2019	114-115	제시문 <다>, <표 2>	○
경제	유종열 외	비상교육	2019	175-176	제시문 <가>	○
경제	유종열 외	비상교육	2019	181	제시문 <가>	○

###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2021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신한은행, 2021. / 『우리나라의 소비불평등 추정 및 주요 특징 분석』,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75권 10호, 2021

<가>는 계층 간 자산, 소득, 소비 격차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전체 가구를 소득 5분위로 구분했을 때, 상위 20%의 자산 규모와 나머지 하위 80%의 자산 규모의 격차는 2020년 들어 더 벌어졌다. 또한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감소했지만, 감소율에 있어서 상위 20%와 나머지 하위 80% 간에 차이가 있었고, 이로 인해 소득 5분위 배율이 증가하였다. 소비 수준에 있어서도 계층 간에 격차가 발생하여 소비 불평등지수가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에서는 집단을 좀 더 세분화하여 분석할 경우 집단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시문 <나> : Witt JK, Linkenauger SA, Proffitt DR, “Get Me Out of This Slump! Visual Illusions Improve Sports Performance”, Psychological Science. 2012; 23(4): 397-399

<나>는 익히 알려진 에빙하우스 착시 현상을 확인한 논문 결과 중 일부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지름이 5cm인 원 A를 둘러싼 주변 원의 크기가 큰지(지름 15cm), 작은지(지름 3cm)에 따라 A의 지름 길이에 대한 실험 참가자들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전자의 경우 추정된 지름의 평균은 6.55cm인데 반해, 후자의 경우 6.95cm로 양자 간의 차이는 0.4cm에 달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해석이나 인식 결과는 비교 기준이 무엇이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착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제시문 <다> : 고용 동향 데이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1.

<다>는 2021년 3/4분기 고용과 관련된 두 개 지표인 취업자수와 고용률을 직전 연도인 202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취업자수는 최소 51만 명에서 최대 67만 명까지 증가하였고, 고용률 역시 최소 0.8% 포인트에서 최대 1.0% 포인트까지 상승하였다. 예년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평균 30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21년 3/4분기 고용 상황은 전반적으로 대폭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에서는 <다>의 기술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와 함께 문제 1-2와 관련하여 2019년 3/4분기 취업자수와 고용률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논제의 구성

1-1. <가>의 관점에서 아래 <표 2>를 참고하여 <다>의 전문가 발언의 한계를 설명하시오. (300±30자)

이 문제에서는 <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계층 간의 차이(혹은 격차, 양극화, 편차)라는 현상을 <표 2>의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연례대별로 취업자수 증가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주장의 한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나>의 논지를 활용하여 <다>의 <표 1>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다>의 견해를 평가하시오. (600±60자)

이 문제에서는 <나>에서 파악할 수 있는 착시 현상을 <표 1>의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같은 대상인 2021년 3/4분기 고용 상황(취업자수와 고용률)에 대한 해석이 비교 시점이 무엇이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다>의 제한적인 기술 내용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채점 기준

[1-1]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li> <li>-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li> <li>-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li> </ul>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b>【제시문 &lt;가&gt;의 관점 파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문 &lt;가&gt;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측정</li> <li>① 계층 간에 발생하는 주요 지표값의 차이 / 격차 / 양극화 / 편차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 소득, 소비와 같은 세 가지 지표에 대한 이해</li> <li>- 소득 분위 계층 간에 발생하는 세 가지 지표와 관련된 차이 / 격차 / 양극화 / 편차 현상에 대한 파악</li> </ul> </li> <li>• 예시답안 참조</li> <li>- Key Word : 계층 간의 차이(혹은 격차, 양극화, 편차)</li> </ul> <p><b>【제시문 &lt;가&gt;의 관점을 활용한 &lt;표 2&gt;에 대한 분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문 &lt;가&gt;에서 확인한 차이 / 격차 / 양극화 / 편차 현상을 &lt;표 2&gt;의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측정</li> <li>② 연령대별 취업자수 변화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29세의 경우, 2021년 3/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수가 계속 증가(7월 19만명, 8월 14만명, 9월 22만명)</li> <li>- 30~40대의 경우, 2021년 3/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수가 감소 및 정체(7월 -11만명, 8월 -8만명, 9월 동일)</li> <li>- 50대의 경우, 2021년 3/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수가 계속 증가(7월 10만명, 8월 8만명, 9월 13만명)</li> <li>- 60세 이상의 경우, 2021년 3/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수가 가장 큰 규모로 계속 증가(7월 36만명, 8월 37만명, 9월 32만명)</li> <li>- 취업자수 증가폭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필요는 없음</li> </ul> </li> <li>③ 연령대별 취업자수 증가에 대한 차이 / 격차 / 양극화 / 편차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대별로 취업자수 증가 규모에 있어 차이 존재</li> <li>- 30~40대의 경우 유일하게 취업자수가 감소하거나 정체</li> </ul> </li> <li>• 예시답안 참조</li> <li>- Key Word : 15~29세 증가, 30~40대 감소, 50대 증가, 60대 증가, 취업자수 증가 차이(혹은 격차, 양극화, 편차)</li> </ul> <p><b>【&lt;표 2&gt; 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제시문 &lt;다&gt;의 전문가 발언의 한계 지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문 &lt;가&gt;의 관점과 이를 &lt;표 2&gt;에 적용한 결과를 토대로 제시문 &lt;다&gt;의 전문가 발언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는 능력 측정</li> </ul>	

<p>④ 연령대별 취업자수 증가 관련 차이 / 격차 / 양극화 / 편차를 토대로 전문가 발언의 한계 지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 상황이 전반적으로 대폭 개선'되었다는 전문가 발언은 연령대별로 취업자수 증가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li> <li>• 예시답안 참조</li> <li>- Key Word : 취업자수 증가 차이 무시(혹은 미확인, 미언급, 미인지 등)</li> </ul> <p>&lt;유의 사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 처리함.</li> <li>-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li> </ul>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고, ④가 부족한 경우	2등급
②, ③, ④를 충족하고, ①이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④를 충족하고, ③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③, ④를 충족하고, ②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과 ④를 충족하고, ②와 ③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을 충족하고, ②, ③, ④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①, ②, ③, ④를 모두 누락한 경우	9등급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 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1-2]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2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li> <li>-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li> <li>-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li> </ul>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b>【제시문 &lt;나&gt;의 논지 파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문 &lt;나&gt;의 논지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측정</li> </ul> <p>① 제시문 &lt;나&gt;의 실험 결과에 대한 이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떤 대상이나 사물에 대한 비교 기준이 달라지면, 해당 대상이나 사물에 대한 인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li> <li>- 이러한 인식 결과의 차이가 대상이나 사물에 대한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음</li> <li>• 예시답안 참조</li> <li>- Key Word : 비교 기준, 착시</li> </ul> <p><b>【제시문 &lt;나&gt;의 논지를 &lt;표 1&gt;에 적용하여 분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문 &lt;나&gt;에서 확인한 '착시'라는 개념을 &lt;표 1&gt;에 적용하고, 제시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 측정</li> </ul>	

- ② <표 1>의 분석을 위해 비교 대상과 비교 기준을 정확하게 설정
    - 비교 대상으로 2021년 3/4분기 취업자수와 고용률을 설정
    - 비교 기준으로 2020년 3/4분기 취업자수와 고용률을, 2019년 3/4분기 취업자수와 고용률을 각각 설정
  - ③ 2021년 3/4분기 고용 상황을 2020년 3/4분기 고용 상황과 비교하여 분석
    -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50~60만 명으로 이례적으로 큼
    - 고용률이 1% 포인트 가량 상승함
    - 고용 상황은 전반적으로 대폭 개선됨
  - ④ 2021년 3/4분기 고용 상황을 2019년 3/4분기 고용 상황과 비교하여 분석
    -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2020년 3/4분기와 비교했을 경우의 절반에 못 미치며, 예년 수준인 3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여 둔화됨
    - 고용률이 1.2% 포인트 하락함
    - 고용 상황은 개선되지 못함
- 예시답안 참조
- Key Word : 비교 시점, 2020년 3/4분기, 2019년 3/4분기, 취업자수 증가 둔화, 고용률 하락(감소)

**【제시문 <다>의 견해에 대한 평가】**

- <표 1>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시문 <다>의 전반적인 견해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측정
  - ⑤ 비교 시점이 달라졌을 때 2021년 3/4분기 고용 상황 해석에 대한 착시
    - 2020년 3/4분기와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대폭 증가
    - 2019년 3/4분기와 비교하면 고용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없음
    - 두 가지 대조적인 결과를 감안할 때, 전자만으로 2021년 3/4분기 고용 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예시답안 참조
- Key Word : 착시, 해석의 편향(한계, 문제 등)

**<유의 사항>**

- 글자 수 400자 이내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고, ⑤가 부족한 경우	2등급
②, ③, ④, ⑤를 충족하고, ①이 부족한 경우	3등급
②, ③, ④를 충족하고, ①과 ⑤가 부족한 경우	4등급
③, ④ 중 한 개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②, ③, ④ 중 두 개가 부족한 경우	6등급
②, ③, ④가 모두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9등급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 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 1-1.

<가>에서는 계층 간에 자산·소득·소비에 있어 ‘차이’ 혹은 ‘격차’ 발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표 2>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21년 3/4분기 15~29세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8만 명 증가했다. 또한 50대와 60세 이상 취업자수는 각각 평균 10만 명과 평균 35만 명 증가했다. 반면 유일하게 30~40대에서만 취업자수가 증가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이처럼 연령대에 따른 취업자수 증가에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연령대간 차이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다>의 전문가 발언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 310자)

## 1-2.

<나>는 비교 기준이 달라지면 사물이나 현상을 인식한 결과도 달라지는 ‘착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나>의 논지를 활용하여 <표 1>의 2021년 3/4분기 고용 상황을 2020년 3/4분기 및 2019년 3/4분기와 각각 비교하면 대조적인 결과가 도출된다.

비교 시점을 2020년 3/4분기로 설정하면, 2021년 3/4분기 취업자수는 50~60만 명가량 증가했고, 고용률도 1% 포인트 정도 상승했다. 이를 통해 2021년 3/4분기 고용 상황이 대폭 개선됐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비교 시점이 2019년 3/4분기인 경우, 2021년 3/4분기 취업자수 증가폭은 둔화되어 24~28만 명에 그쳤다. 이는 비교 시점을 2020년 3/4분기로 했을 때의 취업자수 증가 규모의 절반가량에 불과하며, 예년 수준인 30만 명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고용률은 2019년 3/4분기와 비교하면 오히려 0.2% 포인트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2021년 3/4분기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고 할 수 없다.

요컨대 비교 시점에 따라 2021년 3/4분기 고용 상황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데, 비교 시점을 2020년 3/4분기로 한정된 <다>의 견해는 고용 상황이 대폭 개선됐다는 해석의 편향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상, 620자)

2-2. 문항카드 ② <인문계열 1회차 2번 문항>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1회차) / 문항 (2-1, 2-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한국사, 통합사회, 경제
	핵심개념 및 용어	북학파, 상업자본주의, 자유주의, 시장
예상 소요 시간	5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계 열 문 항 2

<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시장의 번성한 모습을 처음 보고서는 “오로지 말단의 이익만을 숭상하고 있군.” 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 하나만 알고 그 둘은 모르는 말이 분명하다. 대저 상인은 사농공상(士農工商) 사민(四民)의 하나에 속하지만 이 하나가 나머지 세 부류의 백성을 소통시키기 때문에 열에 셋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사람이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고 있다면 그 나머지 물건은 모두 무용지물로 치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용지물을 사용하여 유용한 물건을 유통시키고 거래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유용하다는 물건은 거개가 한곳에 묶여서 유통되지 않거나 그것만이 홀로 돌아다니다 쉽게 고갈될 것이다.  
 따라서 옛날의 성인과 제왕께서는 이를 위하여 주옥과 화폐 등의 물건을 조성하여 가벼운 물건으로 무거운 물건의 상대가 되도록 하였고, 무용한 물건으로 유용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 게다가 다시 배와 수레를 만드셔서 험지까지도 물건을 유통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도 천리만리 먼 곳에 혹시 물건이 이르지 못할까봐 염려하셨다. 민생을 위하여 폭넓게 조치하신 그분들의 정성이 이런 정도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이 수천 리이므로 백성들이 적지 않고, 토산품이 미비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지(山地)나 물에서 생산되는 이로운 물건이 전부 세상에 나오지 않고,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도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일용 생활에 필요한 일이 팽개쳐진 채 논하여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거마(車馬)·주택·단청(丹青)·비단 등이 화려한 것을 보고서는 대뜸 “사치가 너무 심하다.”라고 말해버린다.  
 그렇지만 중국이 사치로 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검소함으로 인해 쇠퇴할 것이다. 왜 그러한가?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을 일러 검소함이라고 하지, 자기에겐 없는 물건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을 일컫지는 않는다. 현재 나라에는 진주를 캐는 집이 없고 시장에는 산호(珊瑚)의 물건값이 정해져 있지 않다. 금이나 은을 가지고 점포에 들어가서는 떡과 엿을 사 먹을 수가 없다. 이런 현실이 우리의 풍속이 정녕 검소함을 좋아하여 그런 것이겠는가? 그 재물을 사용할 기술을 알지 못한 데 불과하다.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알지 못하므로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알지 못하므로 백성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궁핍해진다.  
 재물이란 우물에 비유할 수가 있다. 퍼내면 늘 물이 가득하지만 길어내기를 그만두면 물이 말라버림과

같다. 따라서 화려한 비단옷을 입지 않으므로 나라에는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고, 그로 인해 여인의 기술이 피폐해졌다. 이지러진 그릇을 사용하기를 꺼리지 않고, 기교를 부려 물건을 만드는 것을 숭상하지 않아 나라에는 공장과 목축과 도공의 기술이 형편없고, 그러므로 기술이 사라졌다. 더 나아가 농업은 황폐해져 농사짓는 방법이 형편없고, 상업을 박대하므로 상업 자체가 실종되었다. 사농공상 네 부류의 백성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곤궁하게 살기 때문에 서로를 구제할 방도가 없다.

#### <나>

자유주의의 주장은 다양한 인간 노력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경쟁의 힘을 되도록 최대한 잘 활용하자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것이 아니다. 이는 유효한 경쟁이 창출될 수 있는 곳에서는 다른 그 어떤 방법보다도 경쟁이 개별적 노력의 좋은 길잡이가 된다는 확신에 기초한 것이다. 자유주의는 경쟁이 유익하게 작동하려면, 세심하게 배려된 법적 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그리고 과거 혹은 현재의 법 규칙들이 중대한 결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며 오히려 강조한다. 자유주의는 또한 경쟁이 유효해지도록 하는 조건들을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다른 방법에 의존해 경제 활동의 길잡이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주의는 개인들의 개별적 노력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경쟁보다 더 열등한 방법이 경쟁을 대체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경쟁이 대개의 경우 알려진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권력의 강제적이고도 자의적인 간섭 없이도 우리의 행위들이 서로 조정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경쟁을 우월한 방법으로 간주한다. 사실, 경쟁을 선호하는 핵심적 주장의 하나는 '의식적인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며, 특정한 직업이 그 직업과 연관된 불리한 점과 위험 요소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전망이 있는지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각자에게 부여한다는 점이다. 사회적 조직의 원칙으로 경쟁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에 대한 특정한 유형의 강제적 간섭을 배제해야 하지만, 경쟁의 작동을 상당히 도와줄 수도 있는 다른 유형의 간섭은 인정하며, 심지어 특정한 종류의 정부 행동은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강제력은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 특별히 강조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먼저 시장 참여자들은 거래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 한 어떤 가격에서건 자유롭게 팔고 살 수 있어야 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고, 팔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생산하고 팔고 살 수 있어야 한다.

#### <다>

시장경제는 노동·토지·화폐를 포함한 산업의 모든 요소를 포괄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이나 토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들은 다른 아닌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 자체이며 또 사회가 그 안에 존재하는 자연환경인 것이다. 이것들을 시장 메커니즘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사회의 실제 자체를 시장의 법칙 아래 종속시킨다는 뜻이다. 물론 노동·토지·화폐는 산업의 필수 요소이며, 이것들도 시장에서 조직되어야 한다. 사실 이 시장이야말로 경제 체제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 그러나 노동·토지·화폐는 분명 상품이 아니다. 매매되는 것들은 모두 판매를 위해 생산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가정은 이 세 가지에 관한 한 결코 적용될 수 없다. 사람들은 노동력도 다른 상품과 똑같은 것이라고 억지를 부릴 수 있다. 하지만 노동력과 관련하여 일하라고 재촉하거나 마구 써먹거나 심지어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거나 하면, 그 특별한 상품을 몸에 담은 인간 개개인은 어떻게든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체제 아래서 인간의 노동력을 그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리하다 보면 노동력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사람이라는 육체적·심리적·도덕적 실체도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리하게 된다. 인간들은 갖가지 문화적 제도라는 보호막이 모두 벗겨진 채 사회에 알몸으로 노출되고 결국 쇠락해 간다. 악덕·인격파탄·범죄·굴주림 등을 거치면서 격심한 사회적 혼란의 희생양이 되어갈 것이다. 자연은 그 구성 요소들로 환원되어버리고, 주거지와

경관은 더럽혀진다. 마지막으로 구매력의 공급을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두면 영리 기업들은 주기적으로 파산하게 될 것이다. 노동시장·토지시장·화폐시장이 시장경제에 필수적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인간과 자연이라는 사회의 실제 및 사회의 경제 조직이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경제라는 ‘사탄의 맷돌’에 노출된다면 그렇게 무지막지한 상품 허구의 경제 체제가 몰고 올 결과를 어떤 사회라도 단 한순간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2-1. <가>의 문제를 <나>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300±30자)

2-2. <다>의 내용을 토대로 <나>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600±60자)

### 3. 출제 의도

- [문제 2-1]은 조선 후기 상업의 박대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이 위축되어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가>), 이러한 문제 상황을 경제적 자유주의 입장(<나>)에서 진단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출제되었다.
- [문제 2-2]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주장에 따라 무엇이든 시장에서 팔 수 있다는 시장 자본주의의 부작용(<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의 측정을 위해 출제되었다. 수험생들은 이 문제들을 통해 시장 경제가 가진 순기능과 더불어 그 한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4. 출제 근거

####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중 <한국사> <통합사회> <경제>						
관련 성취기준	1. 사회과 교육과정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과목명: 한국사</th> <th>관련</th> </tr> </thead> <tbody> <tr> <td>성취 기준 1</td> <td>(4) 조선의 성립과 발전 조선의 건국에서 고종 즉위 이전까지의 시기를 다룬다. 조선의 통치 체제 정비 과정과 사대교린 정책을 이해한다. 두 차례의 전란을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살펴보고 조선 후기 통치 체제의 개편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통해 근대 사회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에 파악한다. [10한사04-03] 조선 후기의 정치적 변동 상황을 살펴보고, 근대 사회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을 사회·경제적 변동과 관련하여 파악한다. - 조선 후기 통치 체제의 변화, 봉당 정치의 변화와 탕평 정치의 추진, 세도 정치의 전개 등 제도 개편과 정치적 변동 상황을 파악한다. 또한 조선 후기에 농촌 경제의 변화,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신분제의 동요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근대 지향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음을 이해한다.</td> <td>제시문 (가), 문제 2-1</td> </tr> </tbody> </table>	과목명: 한국사		관련	성취 기준 1	(4) 조선의 성립과 발전 조선의 건국에서 고종 즉위 이전까지의 시기를 다룬다. 조선의 통치 체제 정비 과정과 사대교린 정책을 이해한다. 두 차례의 전란을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살펴보고 조선 후기 통치 체제의 개편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통해 근대 사회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에 파악한다. [10한사04-03] 조선 후기의 정치적 변동 상황을 살펴보고, 근대 사회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을 사회·경제적 변동과 관련하여 파악한다. - 조선 후기 통치 체제의 변화, 봉당 정치의 변화와 탕평 정치의 추진, 세도 정치의 전개 등 제도 개편과 정치적 변동 상황을 파악한다. 또한 조선 후기에 농촌 경제의 변화,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신분제의 동요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근대 지향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음을 이해한다.	제시문 (가), 문제 2-1
과목명: 한국사		관련					
성취 기준 1	(4) 조선의 성립과 발전 조선의 건국에서 고종 즉위 이전까지의 시기를 다룬다. 조선의 통치 체제 정비 과정과 사대교린 정책을 이해한다. 두 차례의 전란을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살펴보고 조선 후기 통치 체제의 개편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통해 근대 사회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에 파악한다. [10한사04-03] 조선 후기의 정치적 변동 상황을 살펴보고, 근대 사회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을 사회·경제적 변동과 관련하여 파악한다. - 조선 후기 통치 체제의 변화, 봉당 정치의 변화와 탕평 정치의 추진, 세도 정치의 전개 등 제도 개편과 정치적 변동 상황을 파악한다. 또한 조선 후기에 농촌 경제의 변화,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신분제의 동요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근대 지향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음을 이해한다.	제시문 (가), 문제 2-1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p>(5) 시장경제와 금융</p> <p>이 단원은 “시장경제는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핵심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 단원에서는 시장경제의 의미,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국제 분업과 무역 및 금융 생활에 대해 탐구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p> <p>[10통사05-01]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p> <p>- [10통사05-01]에서 ‘자본주의의 시간적·공간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은 역사적 사건이나 사상가들의 주장을 통해 다루도록 한다. 그리고 합리적 선택이란 비용보다 편익을 크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택의 효율성만 추구할 경우 공공의 이익이나 규범 준수 등을 간과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 선택과 더불어 그 한계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한다.</p>	제시문 <나>, <다>, 문제 2-2
과목명: 경제		
성취 기준 1	<p>(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p> <p>인간 생활에서 차지하는 경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공적·사적인 경제 문제를 파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한다. 시장경제에서의 경제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고,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 제도를 경제 사회의 발전 과정 속에서 파악한다.</p> <p>[12경제01-03]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를 파악한다.</p> <p>- [12경제01-03]에서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써 전통 경제, 계획경제, 시장경제의 특성을 간단히 비교한 후, 시장경제는 경제 주체의 자유와 경쟁을 바탕으로 가격 기구를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시장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유 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 공정한 경쟁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p>	제시문 <나>, <다>, 문제 2-2

##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북학의	박제가	돌베개	2003	93-95	제시문(가)	○
노예의 길-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진실	F.A. 하이예크	나남출판	2007	78-79	제시문(나)	○
거대한 전환	K. 폴라니	도서출판 길	2009	243-245	제시문(다)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한국사	최병택 외	천재교육	2019	74	제시문 (가)	○
고등학교 통합사회	정창우 외	미래N	2017	126-128	제시문 (나),(다)	○

### 5-1. 제시문 요지와 설명

- 이 문제는 세 제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문 <가>는 상업이 위축되어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 때문에 백성들이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글로 조선 후기 실학 사상가인 박제가의 “시장과 우물”이라는 글의 일부이다.
- 제시문 <나>는 하이예크의 글로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경쟁의 효율성과 그런 경쟁이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을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다양한 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경쟁이다. 물론 이 경쟁은 어떤 인위적인 간섭이나 통제 없이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 제시문 <다>는 폴라니의 글로 모든 것을 상품화 할 수 있다고 믿고 그 상품들이 자유롭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 입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그에 따르면 노동, 토지, 화폐 등은 분명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시장 안에서 조직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결코 상품은 아니며, 그런 한에서 시장 메커니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력과 토지를 상품으로 간주하는 것으로부터 인간의 위기와 환경의 위기가, 그리고 구매력을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둘 경우 기업들의 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 5-2. 논제의 구성

- [문제 2-1]은 <가>의 문제를 <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가>는 백성들이 모두 궁핍한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이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이를 <나>의 관점,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해야 한다. <나>에 따르면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은 인위적인 간섭이나 규제 없는 시장을 통한 자유로운 경쟁이다. 따라서 <나>의 관점에서 보면, <가>의 문제는 상업을 박대하고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음으로써 생산과 유통이 원활하지 않고, 생산 기술 또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문제 2-2]는 시장 경제의 부작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는 문제다. <다>는 <나>에서 무엇이든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의 관점이 가진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노동과 토지, 그리고 화폐와 같이 사회적 실체 혹은 산업의 필수 요소가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상품으로 취급될 경우,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따라서 그런 요소들은 오히려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본다.

※ <가>의 조선 후기 북학파의 문제의식과 <나>와 <다>의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내용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과 [통합사회] 과목에서 모두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다.

6. 채점 기준

- 문제 2-1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p>【&lt;가&gt;의 문제 상황 파악하여 &lt;나&gt;의 관점에서 설명하기】</p> <p>① 제시문 &lt;가&gt;는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궁핍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가 사람들이 상업을 박대하여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함                      ② 시장 기능의 위축으로 생산 기술(공장, 목축, 도공, 농업 기술 등)이 위축되고 있음                      ③ &lt;나&gt;는 경쟁이 인간의 다양한 노력을 조정하는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함                      ④ 이때 경쟁은 어떤 억압이나 강제적인 규제 없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함                      ⑤ &lt;나&gt;의 관점에서 &lt;가&gt;의 문제는 사람들의 노력을 조정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자유로운 경쟁이 일어나는 시장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임</p> <p>• 답안의 구성은 &lt;나&gt;의 관점에서 &lt;가&gt;의 문제 상황을 진단하고 설명하는 것이므로 ①~⑤의 내용이 빠짐없이 문맥에 맞게 잘 구성되어야 함. 단순히 제시문의 내용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lt;가&gt;의 문제 상황을 잘 정의하고, &lt;나&gt;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함.</p> <p>&lt;유의 사항&gt;                      - 글자 수 100자 이내의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p>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했지만, 답안의 완성도가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했으나 ⑤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	3등급
	①은 분명하지만 ②, ③, ④, ⑤ 중 일부만을 충족하고 답안의 완성도가 부족한 경우	4등급
	①도 분명하지 않고 ②, ③, ④, ⑤ 중 일부만을 충족할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일부만을 충족하고 문장 구성 능력이 부족할 경우	6등급
	문제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논리적 구성 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7등급
	문제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논리적 구성 능력 및 문장 구성 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8등급
	글의 분량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100자 이하)	9등급

- 문제 2-2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2	<p>【&lt;다&gt;의 내용을 토대로 &lt;나&gt;의 주장을 비판하기】</p> <p>① &lt;다&gt;의 핵심 요지는 노동·토지·화폐는 산업의 필수 요소이며 시장에서 조직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결코 상품은 아니라는 것이다.                      ② &lt;나&gt;의 주장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사람들의 개별적 노력의 길잡이가 되며, 그런 의미에서 시장에서는 무엇이든 생산하고 팔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팔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생산하고 팔고 살 수 있어야 한다.”)                      ③ 따라서 &lt;나&gt;의 논지에 따르면 노동과 토지 그리고 화폐도 시장의 상품이 될 수 있다.</p>	1등급

<p>④ 그러나 &lt;다&gt;에 따르면 노동은 인간 자체이며, 토지는 자연환경으로서 사회적 실체이다.</p> <p>⑤ 만약 노동, 토지, 화폐가 시장 메커니즘에 지배당할 경우, 인간은 사회적 혼란의 희생양이 되고, 자연은 오염될 것이며, 기업들은 주기적으로 파산하게 될 위험이 있다.</p> <p>⑥ 이는 무엇이든 거래할 수 있는 자유로운 경쟁의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lt;나&gt;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노동·토지·화폐가 비록 산업의 필수 요소이며 시장에서 조직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들이 상품은 아니며 무엇이든 거래하는 시장 경제의 위협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한다.</p> <p>• 답안의 구성은 &lt;다&gt;의 내용을 토대로 &lt;나&gt;의 주장을 비판하는 것이므로 &lt;다&gt;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lt;나&gt;의 주장 또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아울러 ①~⑥의 내용이 빠짐없이 문맥에 맞게 잘 구성되어야 함.</p> <p>&lt;유의 사항&gt;  - 글자 수 200자 이내의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p>	
<p>①, ②, ③, ④, ⑤, ⑥을 모두 충족했지만, 답안의 완성도가 부족한 경우</p>	2등급
<p>①, ②, ③, ④, ⑤를 충족했지만 ⑥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p>	3등급
<p>①은 분명하지만, ②, ③, ④, ⑤, ⑥ 중 일부만을 충족하고 답안의 완성도가 부족한 경우</p>	4등급
<p>①도 분명하지 않고, ②, ③, ④, ⑤, ⑥ 중 일부만을 충족하고 답안의 완성도가 부족한 경우</p>	5등급
<p>①, ②, ③, ④, ⑤, ⑥ 중 일부만을 충족하고 문장 구성 능력이 부족할 경우</p>	6등급
<p>문제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논리적 구성 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p>	7등급
<p>문제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논리적 구성 능력 및 문장 구성 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p>	8등급
<p>글의 분량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200자 이하)</p>	9등급

7. 예시 답안

2-1.

<가>는 백성들이 모두 궁핍한 생활에 처해 있음을 문제로 제기한다. 그 까닭으로 사람들이 상업을 박대하여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본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생산과 유통이 원활하지 않고, 그 때문에 다양한 생산 기술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에 의하면, 인간의 다양한 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은 어떤 억압이나 강제적인 규제 없이 일어난 자유로운 경쟁이다. 시장은 바로 이러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다. <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의 문제는 바로 이런 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발생한다. (306자)

2-2.

<나>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자유로운 경쟁이야말로 인간의 노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거래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 한 어떤 물건이건 자유롭게 생산하고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경우 노동·토지·화폐와 같은 산업의 필수 요소 역시 그런 거래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는 그러한 가정이 잘못되었다고 본다.

<다>에 의하면, 노동과 토지 그리고 화폐가 중요한 요소이며 시장에서 조직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상품은 아니다. 노동은 곧 인간 자신을 의미하고, 토지는 자연환경을 의미한다. 그런 사회적 실체들이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진다면 인간은 사회적 혼란의 희생양이 되고, 자연은 오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화폐의 공급이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진다면 기업들의 주기적인 파산도 피할 수 없다. 이는 거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시장의 상품이 될 수 있으며, 그런 시장에서의 경쟁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나>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 경제 체제 아래서 노동·토지·화폐와 같은 산업의 필수 요소 역시 시장에서 조직되어야 하겠지만, 그것들은 상품이 아니며 시장 경제의 부작용으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다. (616자)